

[2022 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감사 예배 설교문]

염려에서 감사로 (빌4:6-7)

심리학자 켈린스키의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들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선 우리가 해도 되는 걱정, 근심은 하나 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후7:10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근심 외에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6:27)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 우리는 때로 걱정과 문젯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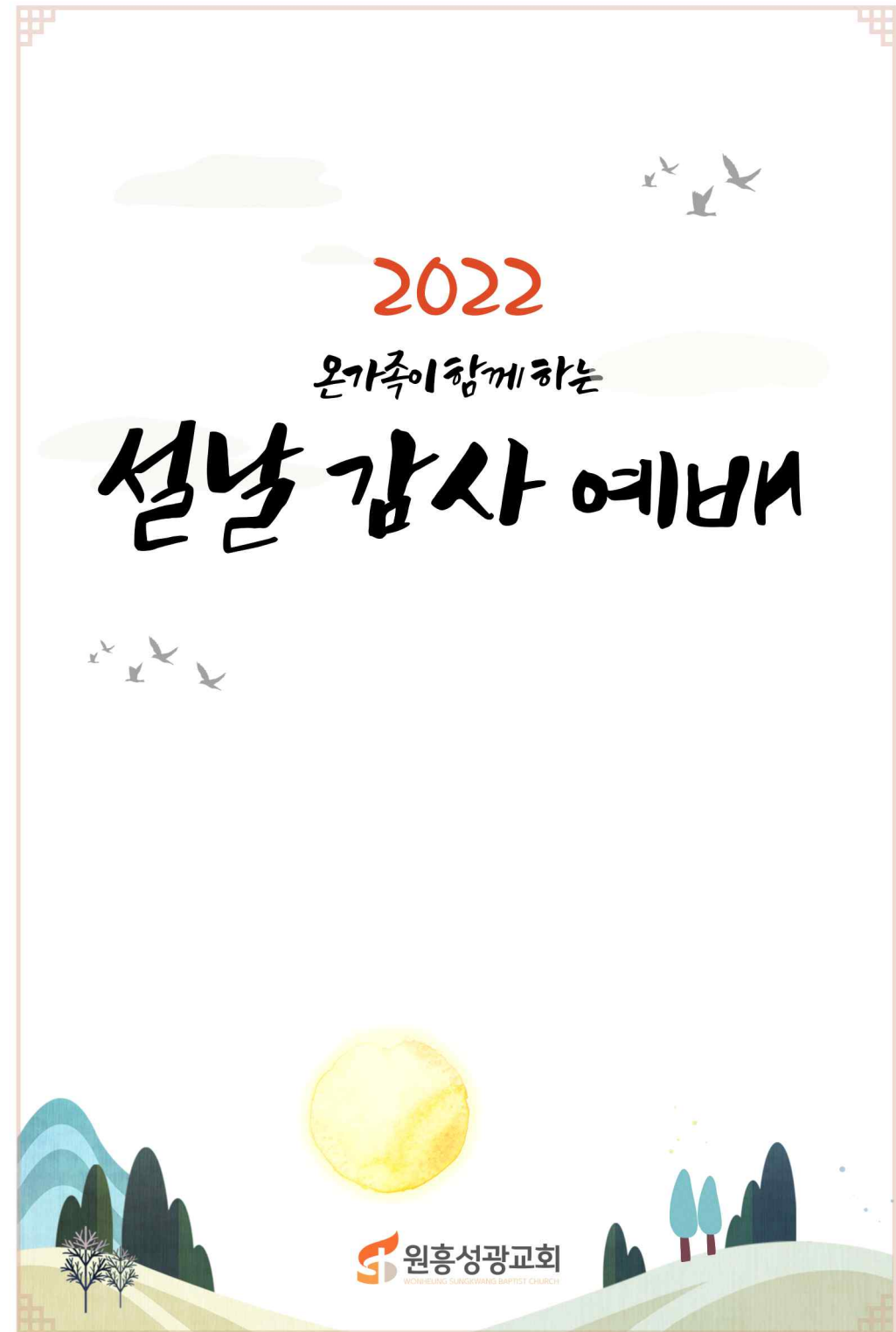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해결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낱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이유들만 찾는 사이에 인생은 우수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의 매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칫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 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평생 걱정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염려는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를 택하든 염려를 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염려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염려는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염려 제조업자가 아닌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공장에서 염려가 아닌 감사를 찍어내다 보면, 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행복이 넘쳐 날 것이다. 시작!, Begin to, 2022년, 감사로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안에서 올 한 해가 복될 것입니다.



■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 ■

1. 들어가는 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설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상들을 추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다같이 설날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 예배의 부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6:1-3)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찬양 _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조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신나의 하나님

4. 골로새서(1:9-12)로 드리는 가정 기도문 _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통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대표기도 _ 가족 중 1인

6. 성경봉독 _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 설교 _ 설교자(뒷면 설교문 참고)

8. 축복의 시간

1)가훈설명

-가정의 가훈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2)떡담(격려와 칭찬의 시간)

-새해 소망을 나누거나, 가족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3)찬양 _ 우리에게 향하신

우 리에게향하 신 여 호와의인자 하 심이
우 리에게향하 신 여 호와의진실 하 심이
우 리에게향하 신 여 호와의계회 하 심이
크 고 크 도 다 크 시 도 다 - -
영 원 영 - 원 하 시 도 다 - -
늘 략 고 늘 략 다 * 늘 라우시 도 다 - -
크 고 크 도 다 크 시 도 다
영 원 영 - 원 하 시 도 다
늘 략 고 늘 략 다 * 늘 라우시 도 다

4)축복기도

-온 가족의 소망을 하나 하나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9.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